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일시 | 2018.5.25.(금) 15시

장소 | 군산 지스코 중소회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 (사)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CONTENTS



■ 토크콘서트 일정표

- ▶ (기조강연) 청소년, 행복증진! 1
최인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부 Youth Voice, 청소년행복을 말하다 15 사회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중2병, 아닌데요? 17
윤나연 (달그락 청소년 인문학 자치기구 WAY 대표)
- ▶ 그릴 시간에 공부나해! 21
한민영 (DYBS 달그락청소년방송국 대표)
- ▶ 너 상고 다니니? 25
윤정선 (청소년 상상셀러 커피팀 팀장)
- ▶ 여기 청소년 있어요 27
이성학 (세상이학교인자퇴생 대표)
- ▶ 스스로 이루어야 가치있는 후기 청소년 행복 32
조용준 (전.ASPECT 청소년기자 2,3기)

■ 2부 행복한 삶,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35 사회: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 청소년의 행복한 삶,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I 목표

-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 공유
- 청소년이 마주한 위치와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관점 공유

II 세부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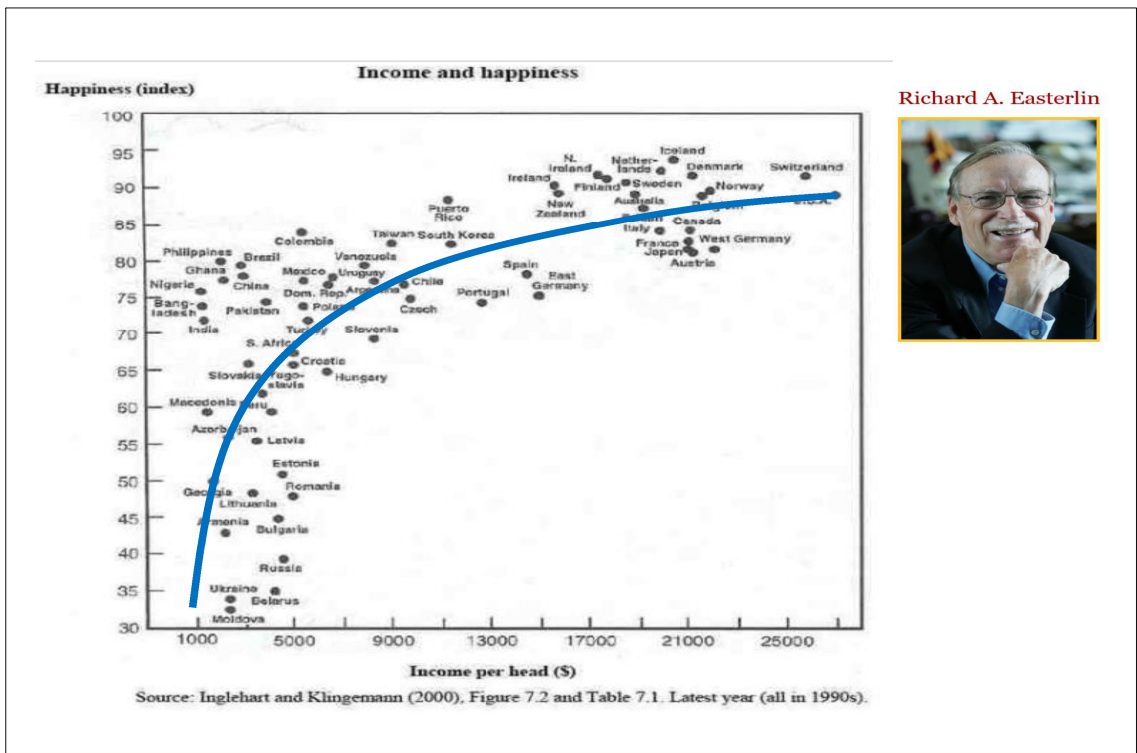
- 주최·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자치연구소
- 일 정 : 2018년 5월 25일(금) 15:00-17:00
- 장 소 :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 일정표

시간	소요(분)	담당	내용
14:40~15:00	20	담당자	접수
15:00~15:15	15'	기조강연	기조강연 : 청소년! 행복증진 (최인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15~15:45	30'	각 발표자	1부 YOUTH VOICE, 청소년 행복을 말하다 사회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1. 중2병, 아닌데요? 윤나연 (달그락 청소년 인문학 자치기구 WAY 대표) 발표 2. 그럴 시간에 공부나해! 한민영 (DYBS 달그락청소년방송국 대표) 발표 3. 너 상고 다니니? 윤정선 (청소년 상상셀러 커피팀 팀장) 발표 4. 여기 청소년 있어요 이성학 (세상이학교인자퇴생 대표) 발표 5. 스스로 이루어야 가치있는 후기 청소년 행복 조용준 (전.ASPECT 청소년기자 2,3기)
15:45~15:55	10'	휴식	전체 휴식
15:55~16:55	60'	각 발표자	2부 청소년의 행복한 삶,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사회 : 정건희 소장 (청소년자치연구소) 게스트 : 위 발표자 5명, 사전 사연신청 최고 득점자 4명 1. 사연신청자를 초대하고 고민을 같이 해결해본다.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 2.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은 사례(사람)- 동의를 팻말을 들고 투표한다. (청소년 행복, 안녕합니다!라고 적힌 팻말)
16:55~17:00	05'	사회자	평가 및 소감 나눔

청소년! 행복 증진!!

최인재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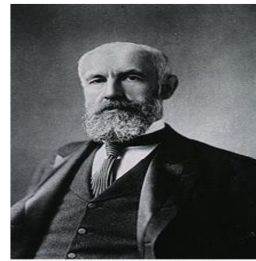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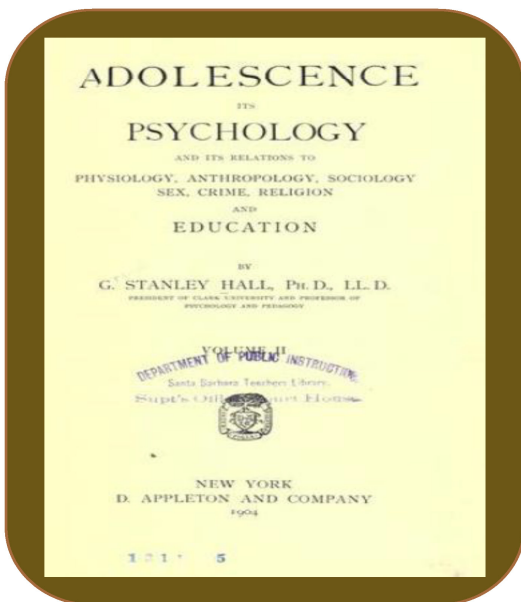


01. 청소년의 발달과 심리적 특성

청소년이란?

1. 청소년(adolescent)의 개념

- 1) 라틴어(adolescere)로 ‘성장한다(to grow up)’ 또는 ‘성숙에 이른다 (to grow into maturity)’란 의미
- 2) 이 시기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 된다는 전환기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Granville Stanley Hall, circa 1910

1844~1924

-청소년기는

* 질풍노도의 시기
(疾風怒濤: storm and stress)

* 심리적 불평형(disequilibrium)의 시기

2. 청소년기의 발달 및 심리적 특징

1) **신체 · 생리적 특징**: 체형의 변화와 성적인 성숙, 2차 성징 출현,
여자는 대체로 11세 전후, 남자는 13세 전후 성장급등기,
여자는 13세, 남자는 15세경이 되면 성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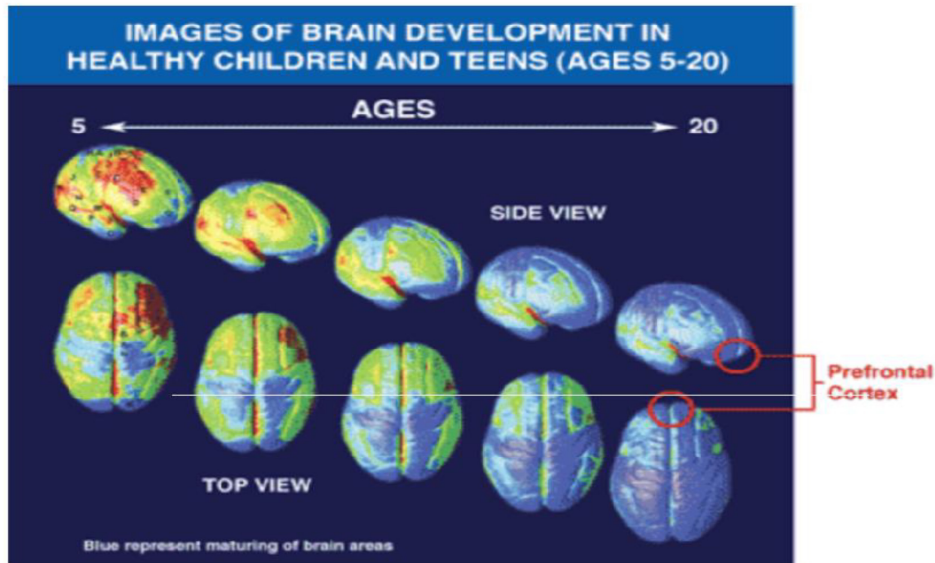
2) **인지적 특징**: 추상적 사고, 가설연역적 사고 가능,
이상주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자아 중심적 사고

3) **정서적 특징**: 불안감, 과민성, 긴장 증가, 양가적 감정

자아정체감의 중요성 대두: 나는 누구인가?

3) 청소년기 뇌 발달





02. 행복감 증진을 위하여...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2012 OECD 회원국의 영역별 국제 비교 결과

수학			읽기			과학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대한민국	554	1	일본	538	1~2	일본	547	1~3
일본	536	2~3	대한민국	536	1~2	핀란드	545	1~3
스위스	531	2~3	핀란드	524	3~5	에스토니아	541	2~4
네덜란드	523	3~7	아일랜드	523	3~6	대한민국	538	2~4
에스토니아	521	4~8	캐나다	523	3~6	폴란드	526	5~9
핀란드	519	4~9	폴란드	518	4~9	캐나다	525	5~8
캐나다	518	5~9	에스토니아	516	6~9	독일	524	5~10
폴란드	518	4~10	뉴질랜드	512	7~13	네덜란드	522	5~11
벨기에	515	7~10	호주	512	8~12	아일랜드	522	6~11
독일	514	6~10	네덜란드	511	6~14	호주	521	7~11
오스트리아	506	10~14	벨기에	509	8~14	뉴질랜드	516	10~14
호주	504	11~14	스위스	509	8~14	스위스	515	10~15
아일랜드	501	11~17	독일	508	9~15	슬로베니아	514	11~14
슬로베니아	501	12~16	프랑스	505	10~16	영국	514	10~15
덴마크	500	12~18	노르웨이	504	11~17	체코	508	14~17
뉴질랜드	500	12~18	영국	499	14~19	오스트리아	506	15~18
OECD 평균	494		OECD 평균	496		OECD 평균	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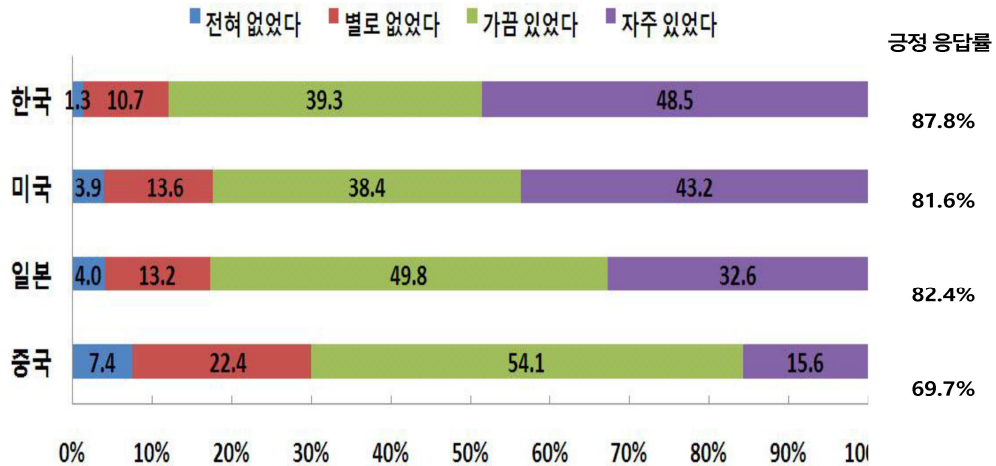
자료: OECD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스트레스 (2011~2012년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4위	1	부모님과의 관계	2.11	2.00
	2	형제·자매와의 관계	1.98	1.92
3위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2.22	2.12
	4	신체건강	1.71	1.62
	5	심리건강	1.71	1.64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1.65	1.56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1.71	1.66
	8	이성과의 관계	1.47	1.44
	9	선·후배 관계	1.33	1.32
	10	선생님과의 관계	1.52	1.44
2위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2.35	2.18
1위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2.71	2.55
스트레스 영역[전체]			1.87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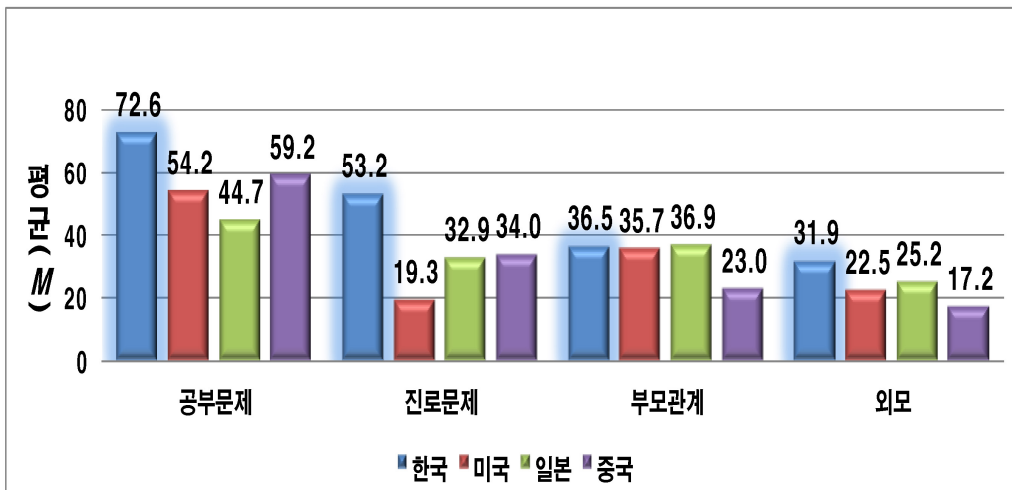
출처: 최인재 외(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스트레스 경험(최근 1년간) 빈도에 대한 국가별 비교



출처: 최인재 외(2010).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주요 스트레스 원인별 국가 간 비교



출처: 최인재 외(2010).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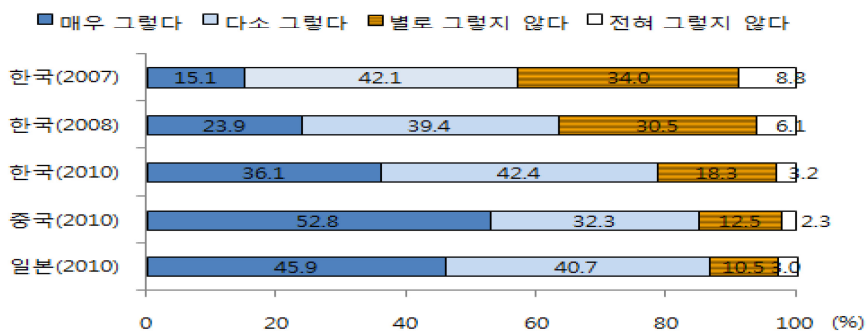
학교생활만족도순위

순위	국가
1	인도네시아
2	알바니아
3	페루
4	태국
5	콜롬비아
6	말레이시아
7	멕시코
8	코스타리카
9	카자흐스탄
10	아이슬란드
11	이스라엘
12	싱가포르
13	우루과이
14	스페인
15	스위스
16	크로아티아
17	노르웨이
18	리히텐슈타인
19	대만
20	포르투갈
21	홍콩(중국)
22	덴마크
23	베트남
24	일본
25	칠레
26	스웨덴
27	브라질
28	상하이(중국)
29	벨기에
30	요르단
31	UAE
32	영국

33	터키
34	네덜란드
35	튀니지
36	아일랜드
37	마카오(중국)
38	몬테네그로
39	뉴질랜드
40	프랑스
41	세르비아
42	캐나다
43	불가리아
44	헝가리
45	오스트리아
46	룩셈부르크
47	호주
48	미국
49	독일
50	슬로베니아
51	리투아니아
52	루마니아
53	아르헨티나
54	이탈리아
55	카타르
56	그리스
57	러시아
58	폴란드
59	라트비아
60	핀란드
61	에스토니아
62	슬로바키아
63	체코
64	한국

자료=2012 PISA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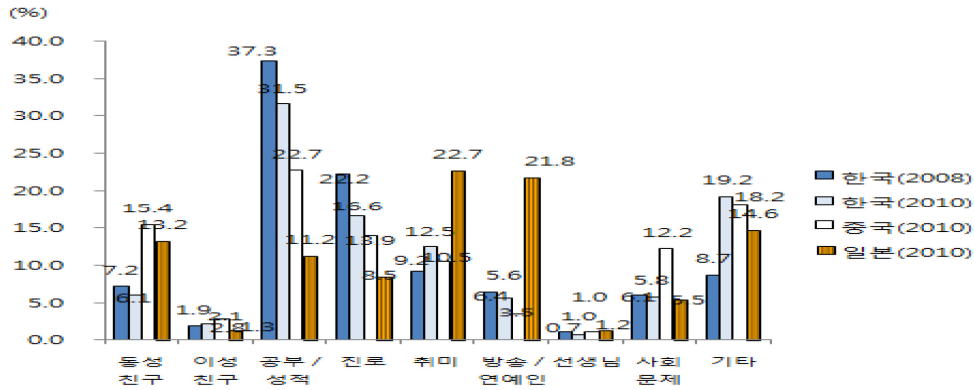
부모와의 충분한 대화 정도



긍정 응답률: 일본(86.6%) > 중국(85.1%) > 한국(78.5%)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부모와의 대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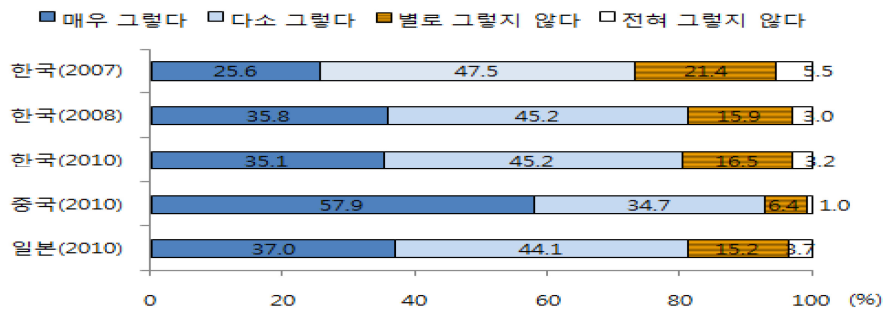
한국: 공부/성적(31.5%), 기타(19.2%), 진로(16.6%)

중국: 공부(22.7%), 기타(18.2%), 동성친구(13.2%)

일본: 취미(22.7%), 방송/연예인(21.8%), 기타(14.6%)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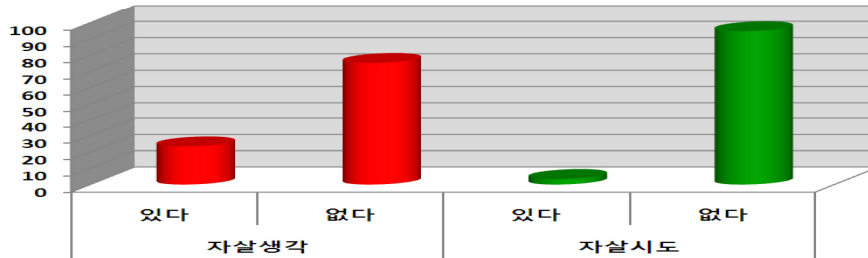
가족생활 만족도



긍정 응답률: 중국(92.6%) > 일본(81.1%) > 한국(80.3%)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청소년 자살(2012년) –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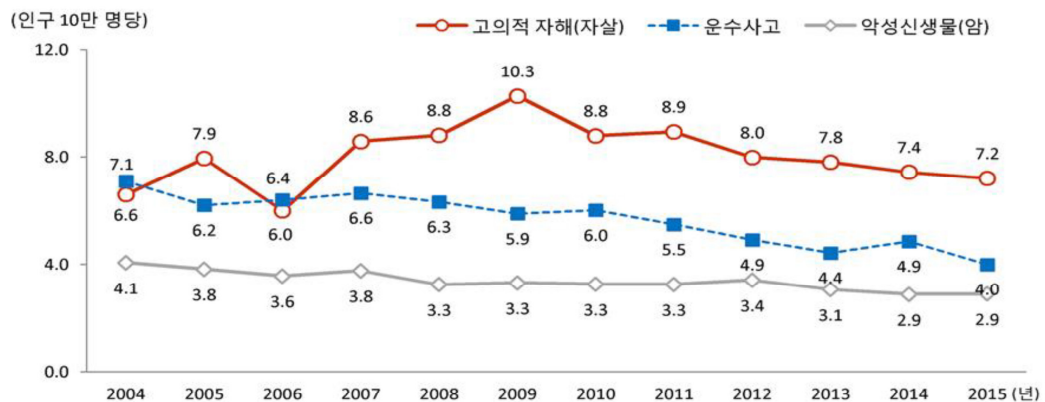


		전체(N)	있다	없다	무응답
1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8,745 (100%)	2,043(23.4%)	6,575(75.2%)	127(1.5%)
2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294(3.4%)	8,281(94.7%)	170(1.9%)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4.4% 시도 경험

출처: 최인재 외(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청소년(9~24세) 사망원인(통계청, 2017)



2017년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표1-1. OECD 국가의 영역별 행복지수 비교

순위	주관적 행복	가족과 친구관계	보건과 안전	물질적 행복	교육	행동과 생활양식
1위	오스트리아 116	이탈리아 120	스웨덴 116	핀란드 118	네덜란드 116	대한민국 126
2위	스페인 115	네덜란드 116	핀란드 114	대한민국 115	대한민국 112	아이슬랜드 111
3위	노르웨이 112	대한민국 112	대한민국 112	덴마크 112	폴란드 112	네덜란드 111
4위	네덜란드 111	노르웨이 111	아이슬랜드 112	독일 110	포르투갈 110	아일랜드 110
5위	덴마크 109	포르투갈 108	일본 110	스웨덴 109	아일랜드 109	스위스 106
6위	스위스 108	스위스 108	노르웨이 109	오스트리아 108	벨기에 108	포르투갈 105
7위	아일랜드 107	덴마크 106	스위스 104	체코 106	독일 108	스페인 104
8위	스웨덴 105	아일랜드 104	네덜란드 104	네덜란드 103	노르웨이 107	덴마크 103
9위	아이슬랜드 105	스페인 101	아일랜드 104	폴란드 103	체코 106	벨기에 101
10위	독일 103	스웨덴 100	오스트리아 103	헝가리 100	덴마크 106	오스트리아 101
11위	그리스 103	아이슬랜드 100	독일 103	프랑스 96	일본 105	캐나다 100
12위	이탈리아 99	독일 98	프랑스 103	이탈리아 95	스웨덴 101	스웨덴 100
13위	영국 97	벨기에 98	영국 102	호주 93	핀란드 101	핀란드 97
14위	폴란드 95	핀란드 97	체코 102	벨기에 93	호주 101	영국 96
15위	프랑스 94	헝가리 97	스페인 100	아일랜드 93	아이슬랜드 100	독일 96
16위	핀란드 93	오스트리아 93	그리스 99	포르투갈 92	뉴질랜드 98	폴란드 94
17위	포르투갈 91	프랑스 93	덴마크 99	영국 92	미국 97	프랑스 94
18위	헝가리 91	그리스 93	벨기에 98	그리스 91	스위스 97	체코 91
19위	캐나다 90	폴란드 92	호주 96	스페인 90	캐나다 97	이탈리아 88
20위	대한민국 88	영국 86	헝가리 94	미국 80	프랑스 97	그리스 86
21위	벨기에 86	캐나다 84	이탈리아 94		영국 95	헝가리 83
22위	체코 81	체코 82	캐나다 89		스페인 91	-
23위	-	-	포르투갈 89		헝가리 85	-
24위	-	-	폴란드 88		오스트리아 83	-
25위	-	-	뉴질랜드 81		그리스 82	-
26위	-	-	미국 75		이탈리아 78	-

자료: 한국보건정책연구원(2017).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표1-2.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주관적 행복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2009	64.3	89.1	110.5	123.4	91.6	95.1
2010	65.1	96.9	104.2	109.6	99.4	129.2
2011	66.0	110.7	102.6	127.8	96.1	129.3
2012	71.4	110.1	102.6	133.9	96.7	126.6
2013	72.5	110.8	108.4	123.0	95.1	129.1
2014	74.0	111.9	111.1	122.2	98.9	128.8
2015	90.4	114.4	110.7	114.5	106.1	135.7
2016	82.0	112.4	113.0	114.5	104.8	129.8
2017	87.6	115.3	112.5	112.0	111.9	1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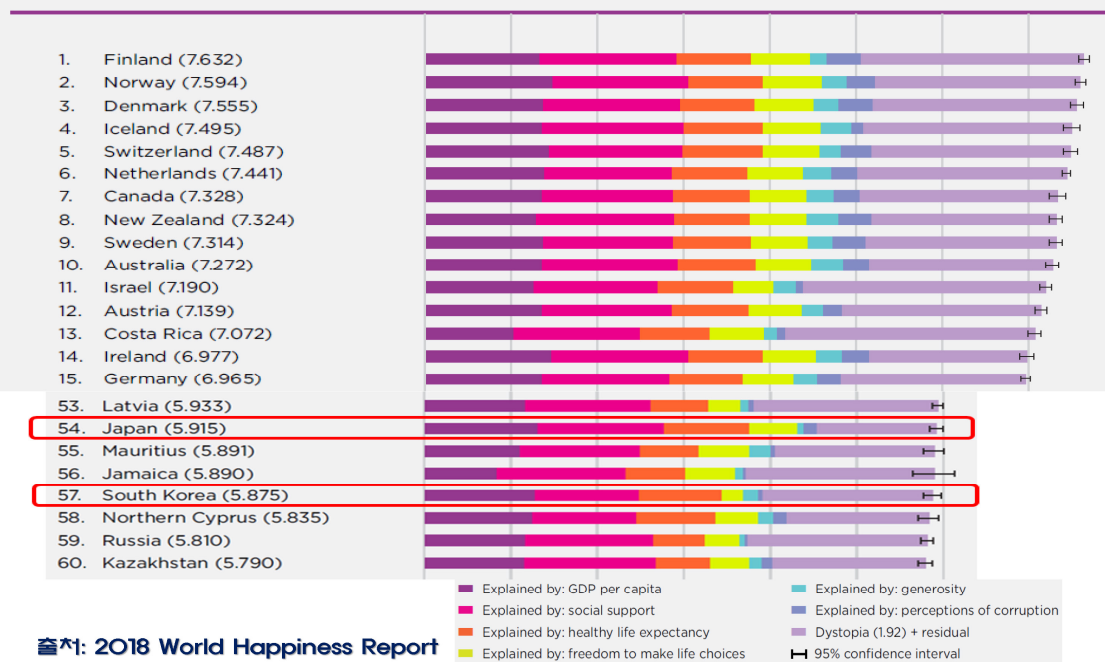
그림1-2. 주관적 행복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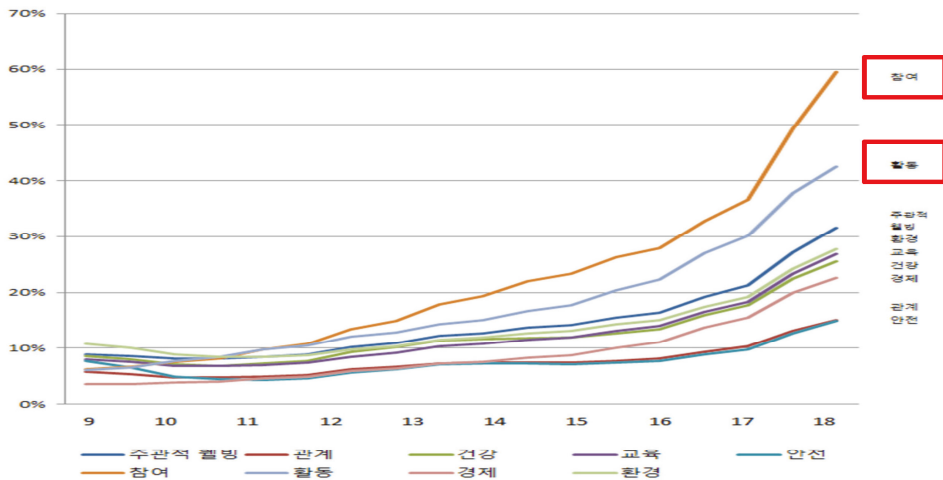
* OECD 평균을 100, 표준편차를 10으로 표준화시킨 점수

* 자료: 한국보건정책연구원(2017).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Figure 2.2: Ranking of Happiness 2015-2017 (Part 1)



출처: 2018 World Happines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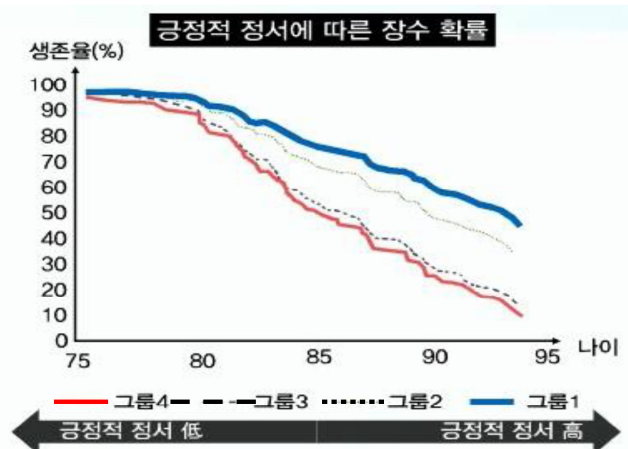
• 자료: 오혜섭,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V

행복의 심리학적 접근

선천적 VS 후천적



(2001, 5. 14)



행복감 증진을 위해...

강점(자신의 적성, 특기)에 초점

목표의 설정과 주도성(자율성) 증진

성공경험을 통해 유능감 확대

긍정정서의 확장(언어로 표현)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기

감. 사. 합. 니. 다





1부 Youth Voice, 청소년행복을 말하다

사회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2병, 아닌데요?



윤나연_달그락 청소년 인문학 자치기구 WAY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인문학 자치기구 WAY 대표 윤나연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중2병, 아닌데요?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 안에서 평범한 15살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나이 또래에 붙는 타이틀은 중2병입니다. 오죽하면 북한에서 남한을 침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병 애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킨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순진하고, 착하고, 재미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순수한 영혼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2병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없애보고자 합니다.

1. 과연 중2병 일까?

저는 요즘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종종 충돌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너 지금 반항하니?’와 ‘너 사춘기야?’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저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 붙이는 입장이고, 부모님은 저와 대화를 하실 때 저에게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 뿐인데 말이죠. 저는 얼마 전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도대체 중 2병의 정의가 무엇이길래 부모님은 저에게 계속 중 2병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중2병이란 ‘중학교 2학년 사춘기 학생들에게서 종종 나타난다는 허세어린 다양한 심리상태를 비꼰 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 2병은 심리상태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의 영역이 큰 상태

라고 생각합니다. 꼭 중 2병은 나쁘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본다면 사전적 정의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2. 행복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것 일까?

저는 얼마 전 1학기 1차 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과보다 낮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때 너무 우울해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해 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교 통학버스가 출발할 때 카톡이 왔습니다. 삼촌에게 온 카톡이었죠. 너 겁나 행복해도 되거든 이라는 문장 이었죠. 그 한 줄 짜리 문장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말 해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잘 하는 것도 다른데 왜 성적을 가지고 등수를 나눠 평가할까요? 또, 학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부가 아닌 대학 입시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과 저는 대화를 하다보면 ‘너의 현재 본분은 학생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 학생도 직업이라면 학생들에게도 일정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똑같은 일들이 매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서 씻고, 또 공부를 하다가 잠에 듭니다. 어른들은 일정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끊임 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학생들에게도 일정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굉장히 좋아하는 인터넷 강사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하시다가 종종 쉴을 풀어주시곤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유튜브에서 어느때와 같이 쉴을 찾아보다가 ‘괜찮아, 행복해도 돼’ 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험생은 행복할 자격이 없는거니?’ 라는 질문과 함께 계속 말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은 삶의 전반부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다 희생시키고, 삶의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희생시킨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격한 공감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대학생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라는 현혹에 빠지면서요.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면 취업을 준비해야합니다. 취직이 되면 또 돈을 모으느라고 몸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반부에서 건강을 다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느 정도 자신을 돌보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 나에게 학교는 감옥

저는 얼마 전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선생님께서 같은 반 친구의 학원 숙제를 가져가셨습니다. 친구는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곧장 교과 담당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친구는 학원숙제가 목숨보다 중요하며 문제집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학원 숙제를 한 친구의 태도는 잘못되었지만, 저는 한 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종이에 적혀 있는 영어 문제들과 수학 문제들이 학생들의 목숨 보다 소중한 만큼 가치 있는 것 일까요? 도덕시간에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너무 공부, 공부 보다는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얼마 전 까지 학교는 재미있고, 신나고, 가고 싶고, 즐거운 곳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학교란 감옥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를 자발적으로 가고 싶었던 학교라면, 현재 저에게 학교란 의무적이고, 가기 싫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통해 많은 직업의 분야를 알게 되고 내가 잘 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하여 구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구분하는게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학년이 되고 나서 자유학기제처럼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지다보니 저절로 학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커지고 말았습니다. 작년에는 1년에 2번만 봤던 시험을 이제는 1년에 4번을 봐야된다는 부담감이 저에게는 무척 크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행복해야된다고 주장하면서, 한 번도 시험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의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진로 체험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나는 행복하다!!!!!!

네이버 사전에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커다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소한 기쁨 하나마저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친구에게 '너 지금 행복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때 왜 내가 행복하다고 대답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쯤 고민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 스스로가 계속 행복하지 않다고 자신에게 쏘아 시키는데 당연히 제 몸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 할 수 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다 오고 나서 나는 너무 행복해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스트레스들은 쌓이고 쌓여서 마일리지처럼 쌓여왔던 것이 였죠. 하지만! 친구들과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하나까. 한 순간에 고민들은 구름 위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 행복해지기 위해 속으로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계속, 계속 반복 하곤 합니다. 그러면 뭔가 저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보면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5. 청소년 자치활동으로 누리는 행복

마지막으로 청소년 인문학 자치기구 WAY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WAY는 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의 청소년 마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자치기구 활동을 합니다. 저는 처음 달그락을 오게 된 계기가 ‘청소년 상상셀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상셀러가 끝난 후 각 자치기구원들을 모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인문학 분야를 선택해서 WAY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활동 시작 할 때 마음가짐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라는 과분한 자리까지 맡게되어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해야지 라는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WAY로 활동을 해야하지만, 현재 WAY는 BODA와 연합해서 KYS라는 연합 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점점 더 친해지고 이제는 오히려 회의하는 날들이 점점 기다려지고, 다들 다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다 같이 인터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는 날은 다들 너무 재미있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 토요일 3시에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달톡콘이 준비되어있으니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럴 시간에 공부나해!



한민영_DYBS 달그락 청소년방송국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방송국 DYBS 대표 한민영입니다. 인문계 고등학생이고요. 저는 오늘 청소년 치고는 적지 않은 나이 18살이 되기까지 제가 수많은 밤 동안 저 자신과 마주하며 느꼈던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부나 하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1세기 고흐

여러분 설마 고흐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고흐는 19세기 인상주의 화가 중에 한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흐가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고흐의 정신과 인생이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던 중 저와 고흐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얼굴이 닮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편지인데요 고흐가 동생 테오와 그 주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저는 밤마다 저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나는 특별한 사람인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과 다르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제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저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끝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점수와 함께요. 분명히 나는 공부를 했는데, 나는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 안 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고 나는 남들과 다르지 않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점점 성적은 떨어지고 목표를 낮춰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무기력해질뿐더러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모든 게 다 시간낭비 같았어요. 다시 일어서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응원용의 편지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삶의 가치와 제가 처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로 내용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미 목표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대체 내 인생의 목표는 누가 정한거지?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찌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온 것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와 명예가 갖춰져야 만이 행복한거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막 이런 말들이 청소년기에 자라나던 새싹 같은 저를 찌들게 만들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한 편으로는 내가 이런 편지를 써서 뭐가 달라 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게 입시제도 문제라고 쳐도 제도를 바꾸려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잖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3. 내가 잃어버린 것들

저는 아직 입시가 현재진행형이고 지금까지 봐온 시험보다 봐야할 시험이 더 남아 있지만, 입시공부를 계속해오면서 항상 공허함을 많이 느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른 채로. 한번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깊게 사귀 친구가 없어서 진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지. 공부를 꽤 잘하고 욕심 있는 친구여서 제가 부러워하기도 했던 친구데 전학 가는 친구를 배웅해주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만약 전학을 가게 되면 자기와 헤어지는게 아쉬워서 우는 친구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올려주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하냐 라면서 친구를 나무랐어요. 공부를 하려면 친구관계에 소홀한건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말하면서도 그게 왜 당연하게 됐는지, 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거나 지키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소홀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저를 잃어버렸고, 방황했고 껍데기만 있으니 더 나아가지도,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4. 가짜어른

저는 항상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어른들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래가 두려워요. 실패가 두려워요... 라고요. 돌아온 대답은 그럴 시간에 공부나해! 였고 처음엔 저도 수긍했어요. 아 내가 지금 시간낭비를 하고 있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고민 하지 않고 시간 관리 하면서 공부하는구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건가? 하며 그런 생각을 접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공부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학생들을 네모난 큐브상자에 밀어 넣고 주체적인 생각도 할 수 없게 한 채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이 사회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꼭 참고 악으로 깡으로 허벅지를 샤프로 찌르며 버티낸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걸까요? 가짜어른은 생각보다 주위에 많아요. 학교 안에서도 찾을 수 있죠. 학생들 앞에서는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듯 하면서도 학교의 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한 특정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학교활동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5. 고흐는 귀가 없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던 중 우연히 외부공간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방송을 만드는 건데요. 제 꿈이 PD거든요. 처음에는 대학입시를 위해 생활기록부를 채울 생각에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고 결과물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시간낭비는 아닌가, 이런 활동보다 결국엔 성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에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히 생기부용 활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활동이구나를 깨닫게 된 후로부터는 동아리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공간에 적응 하면서 저의 고민들도 이야기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한 것들도 이야기 하게 되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색다른 시점에서의 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됐어요. 처음에 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고흐와 제가 많이 비슷하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고흐는 왜 귀를 잘랐을까요? 자신이 편지를 쓰고 아무리 얘기해도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두드릴만한 큰 울림을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얻었어요. 추상적인 고민을 하는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인생의 목표를 세상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 초점을 조금만 더 옆으로

웁기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 제가 귀를 얻고 나서 깨닫게 된 것들이에요. 그 후로 부터는 시험공부를 하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잠을 못자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즐기게 됐어요.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6. 별이 빛나는 밤

행복은 물질적인 것, 남에게 보여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밤 동안 자괴감, 죄책감에 시달려 어둠 그 자체였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제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행복이고요. 제 별이 빛나는 밤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고민, 걱정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거나, 끔끔 대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별이 빛나는 밤을 마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상고 다니니?”



윤정선_청소년 상상셀러 커피팀 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상상 셀러 커피팀 팀장 윤정선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 너 상고 다니니? 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상고에 대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1. “너 왜 상고에 다녀?” 그 선택 후회 안 하겠어?

저는 다른 곳에서 상고에 다닌다고 말을 하면 "상고? 공부 못해서 갔어?"등 안 좋은 반응들이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본문에서는 특성화고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고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물론 상고를 성적이 좋지 않아서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상고에 온 것 일까요? 하지만 제가 상고를 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문계 학교보다 비교적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적어 방과후 시간에 각자 하고 싶은 활동에 집중 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하여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상고를 선택 했습니다

2. 아르바이트 꼭 지금 해야 해?

아르바이트를 할때 가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알바 지금 해야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깊게 생각이 듭니다.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공부나 하라는 걸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생계가 힘들어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이 되었어서,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싶어서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제 진로인

바리스타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서 커피 대회를 준비 하는것도 훨씬 수월하게 준비를 할수 있어서 아르바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라는 말은 청소년의 꿈을 짓밟는 다는 것으로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부를 해야만 행복해 지고 잘 사는 것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른들의 행복과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삶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으로 인한 답이 꼭 정답 이지는 않을 수 도 있기에 "이게 정답이야!" 라는 식의 어른들의 조언을 듣기는 거부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정의를 못 내렸다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 보다 살아가야 할 삶이 더 길기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게 잘 사는거야 저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 내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서 더 많은 고민이 됩니다

3. 청소년 자치활동으로 인한 나의 변화

청소년 자치 활동을 하기 전의 저는 생각하는 대로 말을 막 내 뱉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고 제 의견이 수렴이 안되면 기분이 바로 안 좋아지는 성격이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자치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러한 점들을 서서히 고쳐 나갔습니다. 현재는 독설이 많이 줄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년도를 포함해 경제 자치기구에는 2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로가 경영쪽이다 보니 경제 자치기구의 활동이 제에게는 좋은 경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 충돌이 없을 수는 없는 것처럼 마켓을 열기 전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 충돌을 극복하고 프리 마켓을 열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작년 활동이 끝나고도 다들 많이 친해져서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고난을 함께 해쳐 나가고 더욱 친해져서 일년동안 고생 많았지만 그와 더불어 뿌듯함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활동 할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 많이 늘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있어요.



이성학_세상이학교인자퇴생 대표

1. 학생이세요? 아뇨 청소년입니다.

교복, 학생요금, 학생할인, 중고생 등등.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대체로 ‘학교’중심적이다. 길을 물을 때도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소년을 부르기도 한다. 나이를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은 나이가 아니라 0학년인 경우도 많다. 이처럼 사람들은 청소년과 학생을 같은 의미로 쓴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이 학생이 아니다.(모든 학생이 청소년 또는 10대인 것인 것도 아니다.)

수년 전, 한 청소년이 백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다가 취소당한 적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백일장의 참가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영화관은 청소년 브랜드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했다. 얼마 전에는 어느 지역의 어울림마당에서는 교복을 입고 오면 이벤트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대학생에게 교복을 입힌 전례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참가대상을 중고등학생이라 쓴다 한들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고생≠청소년이라는 경향이 쌓인 청소년은 <참가대상: 중고생>을 보는 순간 좌절감부터 느끼게 된다.

2. 학교 밖 청소년은 괴물이 아니에요.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인구는 약 36만 명(2015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으로 청소년 16명 중 1명(6.2%)이 학교 밖 청소년인 셈이다. 비슷한 기간 한국의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 25대 중 한 대는 독일의 M사, B사의 자동차였다.(등록 자동차 중 수입차 비율 7.5%, M사와 B사의 자동차가 수입차 시장의 55%를 점유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도로에서 두 회사의 자동차를 마주치는 것보다 흔한 일이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대체로 비행청소년, 불량한 청소년, 뛰어난 청소년으로 나뉜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보통의 재학생처럼 보통의 존재로 살아간다. 보통의 재학생처럼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하고, 대학에 갈 고민을 하거나 취업을 생각한다. 남다른 존재가 아닌 보통의 존재일 뿐이다.

3. 자살 대신 자퇴했어요.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라는 물음에 '학교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주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32.6%로 가장 많고, '특기를 살릴 수 없어서'가 17.3%,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가 10%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 다니지 않는 것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 학교가 이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학교가 이들에게 불행을 주기 때문이다.

자퇴한 이유를 물었을 때, 한 청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살 대신 자퇴를 했다고. 그 청소년에게 학교는 불행한 공간이었고,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살 외에 자퇴란 선택지밖에 없던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42.9%는 편견과 선입견, 무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들도 겪는다.

2017년, 광주광역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 1인에게 평균 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사용했다. 그마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또는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광주광역시에는 대안학교 지원, 청소년 작업장 지원 등을 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의 규모가 큰 편이다. 반면 고등학생 1인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는 매년 1천만 원(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15년 기준) 정도가 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부정적이다. 누군가는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배움을 이어나가는 청소년에게 '학업 중단'이라는 표현을 쓴다. 학교를 벗어나려는 청소년은 '학업 중단 위기'청소년이 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들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때때로는 소외계층 청소년에 포함되기도, 사회적 배려 계층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고졸 검정고시를 보지 않은 이들에게 국가는 군대에 갈 자격도 주지 않는다.

대학 입시에서의 차별도 심각하다.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교장’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매년 수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만, 아무도 이들을 평가하려 하지 않아 대학 문턱 앞에서 좌절하게 된다. 심지어 교대는 ‘우리는 자퇴생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4. 그게 왜 문제예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 차별하지 말아야한다,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꼭 듣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애들 다 학교 안 가는 거 아니예요?’ 또한 공적인 자리에서 자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자퇴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괜히 조심하게 된다.

하지만 그게 왜 문제예요?라고 되물으면 그것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을 말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학교는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교사는 오지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들이고, 훨씬 오랜 세월동안 운영하며 검증된 커리큘럼이 있다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은 학교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곳이라고, 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히 좋다면, 그 학교의 능력을 믿으시라고.

5.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정부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을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정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청소년들은 현재를 즐기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다. 학교에서 겪는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만두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그만둔다. 얼마 전, 한 대학 방송국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해당 방송은 6명의 자퇴생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방송 기획자는 인터뷰 후기를 이렇게 남겼다. <스스로를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지금까지 다섯분 인터뷰하면서(한 분 더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의 나는 과연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했구요. 여러분도 다큐 보시면서 뭔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로 잘사는 건 뭘까?(그리고 자퇴를 빨리 해야겠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여^^)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보다 행복하다.

우리는 현재를 즐긴다. 불행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 학교를 벗어난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래를 여는 것에 제한을 받는다. 이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다. 존중 받을 청소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다.

세학자를 운영하며 가장 행복했을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힘들음을 토로하며 조금 덜 불행해지는 회원, 궁금하던 것들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해진 회원, 같이 밥 먹을 친구를 만나 행복한 회원 등등,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기에 누구보다 행복했을 거라고 자부한다.

특히나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은 ‘나 혼자가 아니야’를 알 때이다. 주류의 사람들 속에서는 스스로를 혼자 떨어진 외톨이로 느끼기 쉽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를 말하고, 어른들도 청소년보다 학생이라는 표현을 쉽게 쓴다. 방송에서 그려지는 청소년의 모습은 학생. 심지어 노랫말 속에도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하지만 세학자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자퇴생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퇴생 출신의 어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며 자퇴생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여기 청소년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학교 밖’청소년이기 이전에 청소년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교 밖에도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청소년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 차별을 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권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이 ‘선택’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평일 12시 즈음에 눈을 뜨는 청소년이 있다. 조조영화를 매일 보는 청소년이 있다. 매일 아침 다른 곳을 향하는 청소년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될 것이다. 평범한 밥을 먹을 것이며 평범한 차를 타고 평범한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뿐이다. 동일한 권리를 갖고 살아가는 청소년이 되는 것뿐이다.

여기 청소년 있다. 여기에도 청소년 있다.

스스로 이루어야 가치 있는 후기 청소년 행복



조용준_전 ASPECT 청소년기자단 2,3기

1. 아마추어 사랑꾼

안녕하세요, Youth voice에서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년 조용준입니다. 저는 청소년자치연구소의 ASPECT 청소년기자단 2기 교육팀, 3기 편집팀에서 활동했습니다. 고2, 고3 때였죠. 현재는 ASPECT 서포터즈 회장으로서 청소년기자단의 활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 무려 10년간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곳에서 느낀 것을 토대로 청소년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행복이란?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입을 틀어막아두고 적당적당히 주어지는 것만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군산만 해도 청소년자치연구소와 군산청소년학생연합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조직적이고 주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청소년이 미숙한 존재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못하는 것이 있고,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이 그 이유죠.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일을 맡았을 때, 기존의 직원들과 똑같이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소위 ‘급식’이기 때문인가요? 그것은 바로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안 해봐서 못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국어사전에는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고기 한 점 주지 않고서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는 변명을 대고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습니다.

3. 결정권이 없어 행복하지 못한 청소년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한선은 없지만 하한선은 분명한 선거연령, 자신의 진로와는 관계없이 똑같은 잣대, 같은 것이 아니면 틀린 것이라는 불합리성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저는 10년간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라며 많은 아이들을 봐왔습니다. 외모, 성격, 체격, 나이 등은 물론이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항상 자신이 잘 하는 것으로 서로를 돕습니다. 또, 상대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연이어 주장하고 있는 선거연령 인하가 청소년 행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계속해서 논의되는 반면, 정치적 권리는 없는 청소년은 소외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청소년은 유권자로서 존중받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저는 그 뜻에 동참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은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기초적인 권리입니다.

4. 결정이 강요되지 않아 행복한 청소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을 쥐어짜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보여주기식 문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청소년들이 법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행복의 요인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스트레스일 뿐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부양을 받는다는 점은 경제적인 고민을 덜 수 있게 해주고요.

저는 청소년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기회나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주말과 새벽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기자단에서 기획 및 편집회의를, 새벽에는 기사 편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도 싶습니다. 결론은, 청소년은 자유롭고 여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5. 진로는 평생에 걸쳐 정하는 것

직업에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봐온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나 온 마음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비와 개인 시간으로 베푸는 이타적인 삶. 저는 그것을 동경하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면 저는 몸이 약해 병원 신세를 많이 진 탓에 청소년기자단에서 수액보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결정에서 고민을 하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이 신체조건이 사회복지사와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아이소리를 위해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심이 가니 아동복지에도 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법인가 봅니다.

이용아동으로, 자원봉사자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애들’도 다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화체험 전 날 합숙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상처를 조목조목 얘기하던 아이들이, 작은 것에도 환한 미소로 답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센터 막내를 챙겨주고 보듬아주는 내리사랑이, 어떤 것을 ‘극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불쌍하지도,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닌, 그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는 별개로 지역아동센터 간 연대해 그 인지도와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2부 행복한 삶,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사회: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MEMO

MEMO

세미나자료집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

인 쇄 2018년 5월 25일

발 행 2018년 5월 2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